정병석의 경제멘토링

경제성장과 유교문화

IMF 외환위기로 온 국민이 충격과 좌절에 휩싸여 있을 때 '문화에 발목잡힌 한국경제'라는 책이 지식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다각도로 경제위기의 원인을 규명하던 사람들에게 '우리의 유교문화가 주된 요인이다'고 지적하여 참신한 충격을 준 책이다.

미국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하고 들어온 여류학자 3인은 같은 유교문화권인 한국·중국·일본 중에서 유독 한국이 도덕적 명분을 중시하고 경제활동을 경시하는 유교적 문화의 전통을 강하게 이어오고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 그것이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한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초 '가진 사람이 고통받게 하겠다'고 한 발언에서 드러나듯이 사회 곳곳에 반 자본주의적 문화, 상공업으로 돈 버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문화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관치경제, '역사바로 세우기', 청와대 칼국수, 골프 금지령 등 정부가 국민의 역사관과 생활문화까지 간섭하려는 것이 조선 후기의 유교문화가 잔존하는 증거라고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한국경제가 1970년대 80년대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발전을 이룩하고 외환위기도 바로 극복하고 성장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 유교문화가 한국경제를 발목 잡았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발목잡힌 것은 현대의 경제가 아니라 조선의 경제였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시각에서 보면 흥미로운 것이 많다.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3국이 공통적으로 가족을 중시하는데도 실제 가족을 중시하는 행태는 나라마다 다르다. 중국에서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조상이 제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한다. 재산을 물려준 조상의 위패는 모시되 제사는 부모에게만 한정한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재산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4대까지는 당연히 제사를 모셔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은 독특한 '가(家, 이에)' 문화를 만들어 냈다. 이 가는 혈연보다는 경제 공동체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가문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적임자를 입적시켜 후계자로 상속하게 한다. 친자식이 무능하면 사위나 유능한 종업원을 후계자로 지명하여 상속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기반에서 우리와는 달리 일본의 가족기업, 중소기업이 자생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조선 후기는 조선 사회가 이미 창업단계를 지나 수성의 단계로 접어든 시기이다. 조선의 창업단계에서 유교는 정치체제를 안정시키고 사회기강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이 시기에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학문으로서 유교의 이론이 작동한다. 그런데 후기 수성단계에 들어서자 통치보다는 자기수양에 중점을 두는 유교의 규범측면이 더 부각된 것이다.

낙향한 선비들은 고향에 서원을 설립하고 후학을 양성하면서 양반들이 실행하던 생활 규범을 일반 민중에게도 전파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지, 형제간에 우애하는지를 국가가 감독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자는 반사회적 행위로 단죄하는 것이다. 관료중심의 사대부들에게는 청빈(淸貧)이 필요할지 모르나 왜 일반 민중에게까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좋고 영리를 탐하는 것은 천한 일이라는 인식을 보급했을까?

조선과 중국같이 중앙집권제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유능한 정치 리더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모든 면에서 번성하게 된다. 청나라 강희제·옹정제·건륭제 시대는 무려 130년에 걸쳐 3명의 걸출한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로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된다.

조선도 영조·정조시대 76년간 훌륭한 리더십으로 황금시대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국가에 유능한 리더가 오래 통치할 때는 강력한 리더십을 토대로 일사불란하게 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집권제가 더 효율적이다.

일본은 봉건제를 통해서 수많은 지방의 영주(일본식으로는 번주)들이 서로 경쟁하는 체제를 만들어 냈다. 그래서 자기의 나라(영지)에 잘 맞는 부국강병 정책을 찾아내고 인재를 등용하여 자기 영지의 경제력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에 몰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방분권제는 전국적인 통일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으나 무능한 리더 한 사람이 국가에 가져올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좋은 점도 있다.

조선은 초기에 왕권이 강하여 관료제를 채택하였지만 왕이 친정하는 체제였다. 후기에 들어서면서 왕보다는 사대부집권 관료계층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사림정치, 나아가 세도정치까지 연결된 것이다. 그런데 중앙과 지방의 정치까지 장악한 집권세력인 사대부들이 주자학의 과도한 명분과 의례에만 사로잡혀 당파간의 정쟁에 몰두하면서 제도개선과 부국강병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서양에서 산업혁명의 물결이 넘쳐 오는데도 주자학의 관념적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조선의 폐쇄된 관료사회는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을 외면한 채 결국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나라의 발전을 발목 잡은 것이다.

국가의 경제에도 정치적 리더십, 지도층의 확실한 문제인식과 정책, 개방된 경쟁체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양대 석좌교수〉

사설

광주비엔날레 개막, 성공 개최 당부한다

아시아의 대표 비엔날레이자 현대미술 축제인 2012 광주비엔날레가 6일 프레스 오픈을 시작으로 11월11일까지 66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라운드테이블(ROUNDTABLE)'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는 김선정, 마미 카타오카, 캐롤 잉화 루, 낸시 아다자냐, 와싼 알 쿠다이리, 알리아 스와스티카 등 6명의 아시아 출신 여성감독이 총지휘를 맡아 40개국 92명(팀)의 300여 작품을 선보인다.

'라운드테이블'은 원탁에 앉아 도란도란 얘기하다 보면 증오도 없어지고 희망과 꿈을 펼칠 수 있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전시는 6개의 섹션으로 나눠 열리며 '다양성'을 주제로 실험적인 작품들이 소개된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풍부하다. 매주 토·일요일에는 콘서트 '마셔라 예술'과 직접 아트상품을 제작할 수 있는 '주말 예술 난장'이 열린다. 시민 25명이 참여하는 '나도 비엔날레 작가 마실'에는 직접 작품을 기획하고 장소를 선정해 색다른 전시를 선보인다.

올해로 9회를 맞은 광주비엔날레는 단순한 미술이벤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광주의 대표 브랜드다. 지난 2002년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의 거점도시로 선정된 데에도 이 같은 '비엔날레 효과'를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비엔날레의 성공 여부는 완벽한 준비와 외국인을 비롯한 관람객 규모, 출품작의 예술성에 따라 결정된다. 과거, 개막을 목전에 두고서도 작품 설치가 지연되고 전시 중에 작품이 망가져 관람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구태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이 모두는 비엔날레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철저한 준비, 세심한 관람객 맞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주비엔날레가 명실상부한 국제 비엔날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성범죄 수배자 수백명 경찰은 뭘 했나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찰에 붙잡히지 않은 범죄자가 무려 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검거율이 11%인 점을 감안하면 10명 중 1명이 거리를 활보하는 셈이다. 성범죄자는 재발률이 높아 2차 범행 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강간, 강제추행 사건 범인은 모두 5449명으로, 이 가운데 4849명이 검거됐다. 그러나 11%인 605명은 아직까지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성범죄 미제사건은 지난 2008년 107건에서 2010년 152건, 지난해 192건 등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성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공권력을 무력화시켜 이들이 법과 질서를 얕잡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2차 범행에 대한 우려도 크다. 그런데도 경찰이 재범 가능성이 농후한 성범죄자를 미검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성범죄자를 조속히 붙잡아 철퇴를 가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경찰력 수요가 워낙 많은데다 불심검문에 대한 거부 반응, 수사 공조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배자 검거가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들의 기대치는 높은데 치안 현실이 이를 따르지 못한다는 얘기다.

성범죄자를 붙잡아 재판에 넘겨봐야 벌금·집행유예 등으로 빠져 나가는 현실에서 경찰을 다그치기만 하는 것도 민망한 일이다. 따라서 성범죄자는 예외없이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엄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경찰은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담부서 신설 등 대책을 내고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수배자 검거다. 그래야만 피해자들이 후유증과 두려움에서 조기 해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2의 범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종교칼럼

출가한다는 것은

일담

며칠 전 젊은 아가씨가 어머니와 함께 출가를 상담하러 왔다.

한국의 부모님들이야 자식들이 출가를 해서 승려가 된다면 마음 아파하는 것이 보통이다. 모녀가 친구처럼 속이야기를 터놓고 지내는 사이라지만 하나뿐인 딸이 출가를 하겠다고 하니 말리지는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손에 잡히듯 보인다. 그런 어머니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참 난감했다. 15년째 승려생활을 하고 있는 나로서는 출가해서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행복하지만 출가 경험을 해 보지 못한 이들에게는 별로 다가오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출가라고 하는 것은 속세의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나를 둘러싼 인연의 허물을 벗어버리면 전과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된다. 세속의 물질적인 욕망이 아닌 고타마 싯다르타가 추구했던 대자유인, 온전한 인간으로 완성되는 수행의 여정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처음부터 그런 길에 들어서지는 않는다. 온갖 인연으로 출가를 해서 승가교육을 통해 단련되고 몇 번의 고비와 수행을 통해 내게 맞는 수행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난 해인사로 출가를 했다. 해인사를 소개시켜준 스님은 '이 길이 네 가치와 다르다면 바로 돌아서 나와라. 그것은 빠를수록 좋다. 대신에 힘들다고 나오지는 마라.'라며 내게 조언을 해주셨다.

해인사에서는 출가하러 왔다고 해서 바로 행자 생활을 시키지 않는다. 허름한 운동복을 입히고 삼천 배를 하고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90도 인사를 시키고 공양간에서 수백 명의 짬밥 설거지를 해야 한다. 혼자 경내를 어슬렁거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꼭 끈에 묶인 애완견 마냥 화장실부터 객실까지 행자님의 손에 이끌려 다녀야 한다.

내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한평반쯤 되는 객실에서 벽을 보고 앉아 있는 시간이었다. 8월 한여름 객실은 찜통처럼 더웠다. 땀으로 범벅이 된 옷에서는 쉰내가 나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벽을 보고 앉아 있자니 오만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부모님과 가족들, 친구들,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부터 사회에서 하고 싶은 일까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 생각의 끝은 24살 한창 좋은 시절에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였다. 2년 정도 사회에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그러고 나서 지리산 암자 같은 곳으로 출가해도 늦지 않을 텐데…. 괜히 사서 고생한다며 어떻게 빠져나갈까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해인사에서 도망칠 궁리에 빠져 있을 때 나를 해인사까지 바래다준 스님이 떠올랐다. 그리고 스스로 깜짝 놀랐다. 불과 이틀 전 해인사로 올 때는 지금 당장 출가하겠다는 생각만 하던 내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것은 그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 스스로를 바라다보니 금방 답이 나왔다. 육체의 고통이 나 자신을 합리화시킨 것이다. 처음 발심했던 마음이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전혀 다르게 가지를 뻗친 것이다. '힘들다고 나오지 마라.'라는 스님의 조언은 내가 이럴 줄 알고 하신 말씀 같았다. 지금의 퇴굴심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를 살피고 난 후에는 마음이 평온해 졌다. 그리고 이틀 후 처음 발심했던 것처럼 행자 입방식을 하고 머리를 깎았다.

그때 내가 해인사 객실에서 뛰쳐나왔다면 어땠을까? 출가를 할 수 있었을까? 이후 수행자로 살면서도 매번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마다 해인사에서의 경험이 많은 힘이 된다.

처음 발심한 마음을 지키는 것, 출가 혹은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임에 틀림이 없다. 〈백련사 총무스님〉

無等鼓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는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히 와 이야기 한다.

시인 백석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의 한 구절이다. '마가리'는 '오막살이'를 '고조곤히'는 '고요히'를 의미하는 평안도 사투리로 모던한 시 분위기와 토속적인 정서가 조화를 잘 이룬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백석 앓이

평안북도 정주 출신인 백석은 19세에 신춘문예를 통해 화려하게 등단한 천재 시인이었다. '남의 정지용, 북의 백석'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토속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모던한 이미지를 형상화하는데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해방 이후에는 북한에 남아 1996년 84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번역에 몰두했다. 당성(黨性)이 약하다는 이유로 산간오지인 함경도 삼수로 유배돼 양치기로 살기도 했지만 끝까지 김일성 우상화에 나서지 않았다. 분단 이후에는 시 창작보다 번역에 몰두한 점도 김일성 우상화의 제물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었다.

백석 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아 동시 2편과 번역본 40여권이 새로 발굴됐다. 공개된 번역서들은 양과 질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번역가로서의 그의 능력을 입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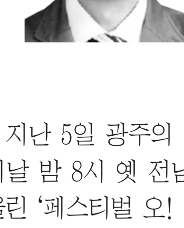
첫 선을 보인 대화 형식의 '우레기'라는 동시는 물고기인 '우럭'을 의인화 했다. "우레기야, 우레기야 네 살가죽은 왜 그리 시꺼머냐?"고 아이가 묻자 우럭은 "바위 돌을 닮노라고 이리도 시껌하지, 바위같이 시껌해야 사나운 고기가 못 알아보지"라고 답해 우럭의 생태를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이번 발굴은 재산과 건강을 잃으면서도 평생을 백석의 자료 수집에 바친 한 아마추어 전문가를 포함해 일반인 5명의 손에 의해 이뤄졌다는데 의미가 깊다. 아마추어들의 '백석 앓이'가 낳은 결과가 사뭇 놀랍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기고

미디어아트 축제, 상상하는 즐거움



김기곤

지난 5일 광주의 밤풍경이 확 바뀌었다. 이날 밤 8시 옛 전남도청앞에서 팡파르를 울린 '페스티벌 오! 광주 미디어아트 2012'에 힘입어 빛의 향연이 펼쳐졌다. 모아지고 흩어지는 강렬한 빛과 음향은 지나가는 시민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하루 일을 마치고 휴식을 재촉하는 저녁시간에 그것도 미술관이 아닌 거리와 건물을 무대로 한다는 점에서 도시민의 새로운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아시아 최초의 야외 미디어아트 축제로 준비 단계에서부터 주목을 받았다. 미디어아트가 아직은 우리의 예술적 지각 세계에 친숙하게 자리하지 못한 실험적 장르에 머물러 있다. 고로 시민들의 반응은 그닥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운집과 집중의 효과는 있었다.

체험학습을 겸해 관람에 나선 고등학생들은 "재미있다", "신기하다", "새로운 경험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일빌딩 외벽에 쏘아 올려진 줄리안 오피의 '피플 워킹'은 도심의 밤풍경을 새롭게 하며 보는 이의 시선을 압도했다.

도시가 어떻게 인간을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었는지를 탐구한 책이 있다. 에드워드 글레이저의 '도시의 승리'는 튼튼한 경제만이 아니라 풍부한 즐거움이 사람들을 도시에서 더 살고 싶게 만든다고 말한다. 미디어아트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실험적인 예술은 시민들을 새로운 감각적 경험과 즐거운 호기심의 세계로 이끈다.

예술이 시민들의 일상과 더욱 긴밀한 친화력을 갖기 위해선 갖춰져야 할 요소가 있다.

시민들이 예술의 능동적인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 아시아문화마루 앞에 설치된 '있잖아요'라는 작품은 그런 맥락에서 매우 흥미롭다. 작품인 유리박스는 시민들의 자유발언대의 역할을 수행한다. 박스에서 재생된 발언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된다.

이 과정을 통해 시민들은 수동적 관람자에서 적극적인 창작자로 진화된다. 둘째, 작품에서 재현되는 주제와 내용이 도시의 기억들, 일상의 희망들과 결합되어야 한다. 미디어아트는 그런 점에서 광주가 보듬어온 역사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매체임에 틀림없다.

옛 전남도청별관 외벽에 적용된 미디어 파사드는 도시의 외관에 새로운 옷을 입히는 작업 그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도청을 향해 엄습해 온 과거의 어두운 공포를 미디어아트의 강렬한 빛이 걷어내는 명과 암의 선명한 대비는 광주의 과거와 미래를 암시한다.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로보틱 아리러니-스펙터클 도시'는 기술공학이 어떻게 사회적 현실과 조화롭게 만날 수 있는가를 명쾌하게 보여준다. 잊혀져가는 5·18에 대한 기억을 로봇 청소기를 이용해 비판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상상력과 테크놀로지가 융합되어 예술로 발전한 미디어아트는 광주의 기억과 일상을 보다 역동적이고 흥미롭게 재현할 수 있다. 빛의 도시, 혁신도시 광주의 정체성과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광주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미디어아트 분야에 가입하려는 것도 미디어아트가 갖는 대안적인 창조 능력에서 비롯된다.

미디어아트를 통해 문화도시로서 예술적 역량을 키우고 광주가 경험한 역사를 세계의 문화도시들과 공감하려는 노력은 빛의 도시 광주의 일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동적인 감상자 중심의 예술을 넘어서게 하고, 첨단기술·미디어를 적극 수용해 사회문화적 변화를 선도하는 광주에서 시민들은 더욱 큰 즐거움과 애착을 느낄 것이다. 시민의 일상이 항상 기술적 진보에 의해 혁신되듯이, 빛의 기술과 일상이 공진하는 그런 광주를 미디어아트 축제에서 상상해 본다. 즐거운 상상이다.

〈광주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書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